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 영역 듣기 대본

1. 이제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여름에 마시면 좋은 한방차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줄줄 흐르는 땀과 잠 못 이루는 열대야로, 기운 빠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여름에는, 오미자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오미자차는 갈증 해소에 좋을 뿐만 아니라, 폐의 기운도 북돋워 주고 혈액 순환도 원활하게 해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졸음까지 쫓아주니, 피로해지기 쉬운 여름에 더없이 좋습니다.

오미자차는 오미자를 가루 내어 물에 타거나, 말려 두었던 오미자에 물을 붓고 약한 불에 은근히 달인 뒤, 꿀이나 설탕을 타서 만듭니다. 또, 늦가을에 생오미자와 설탕을 일대일의 비율로 섞어 원액을 만들어 두었다가, 여름철에 원액 한 스푼을 냉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 너무 지쳤을 때는 ‘생맥산’ 음료도 좋다고 합니다.흔히 우리가 ‘맥 빠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생맥산은 ‘맥이 살아난다’, 즉 맥이 빠졌을 때 먹으면 맥에 생기를 북돋워 준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생맥산 음료는 인삼, 오미자, 맥문동을 달여서 만듭니다. 물 2L에 인삼 10g, 오미자 10g, 맥문동 20g을 넣고 물이 절반 정도로 줄 때까지 약한 불로 달이면 되니까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삼이 몸에 맞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테니, 자기 체질에 맞게 마셔야 합니다.

2. 이번에는 요트에 대한 강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요트에는 그림 (가)처럼, ‘메인세일’, ‘제네이커’, ‘지브세일’, 이렇게 3개의 돛이 달려 있습니다. 요트가 항해 중일 때는 이 중 2개의 돛을 이용해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배 가운데 있는 ‘메인세일’은 늘 펼쳐 놓고, 순풍이 불면 ‘제네이커’, 역풍이 불면 ‘지브세일’을 펼쳐서 바람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는 거죠. 항상 펼쳐 놓는 ‘메인세일’은 순풍을 ‘제네이커’로 보내는 역할을 하거나, 역풍의 흐름을 원활히 해줍니다.

자, 이제 그림 (나)와 (다)를 봅시다. 먼저, 그림 (나)처럼 요트의 뒤쪽에서 순풍이 불면, ‘제네이커’를 펼칩니다. 그러면 ‘제네이커’를 때리는 바람의 힘으로 요트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역풍이 불 때, 요트는 어떻게 전진할까요? 그림 (다)처럼 비스듬히 불어오는 역풍을 만나면 ‘지브세일’을 펼쳐 바람의 방향에 평행이 되도록 맞춥니다. 그러면 ‘지브세일’의 뒷면으로 들어온 바람이 ‘지브세일’을 앞쪽으로 부풀게 합니다. 돛이 앞쪽으로 볼록해지면 앞쪽으로 지나가는 바람의 속도가 빨라져 돛 앞쪽의 기압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앞으로 볼록해진 돛의 뒤쪽은 바람이 지나는 속도가 앞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려 기압이 높아지는 거죠. 이때 돛의 앞뒤 기압차에 의해 기압이 높은 뒤쪽에서 기압이 낮은 앞쪽으로 움직이려는 힘이 생깁니다. 바로 이 힘에 의해 요트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단, 바람이 앞쪽 측면이 아니라 정면에서 불어오면, 요트는 방향을 좌우로 바꾸며 지그재그 형태로 항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역풍이 불어도 요트가 전진하는 원리는 비행기가 떠오르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비행기의 날개는 윗면이 아래면보다 넓은 유선형 모양인데, 날개 위아래로 흐르는 공기의 속도 차이에 의해 생기는 기압차를 이용하여 비행기를 뜨게 하는 것입니다.

3. 이번에는 대화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 : 선생님. 제가 다음 주 수업에서 발표를 해야 하잖아요? 내용 준비는 웬만큼 했는데, 발표하려니 걱정이 돼요.

선생님 : 내용이 준비되었는데 뭐가 걱정이지? 그냥 준비한 것을 발표하면 되잖아.

학생 : 그게, 발표만 하려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안 나와요.

선생님 : 네가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구나. 사실 선생님도 예전에 너하고 비슷했단다. 그래서 발표를 앞두고 어떻게 발표할지 미리 순서를 짜 본 적이 있어.

학생 : 저도 그렇게 해 봤는데, 여전히 멀리던걸요.

선생님 : 그래서 선생님은 친한 친구들 앞에서 발표 연습도 몇 번 해 봤어.

학생 : 저도 친구들 앞에서 연습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때뿐이었어요.

선생님 : 그래? 그럼 왜 그럴까? 혹시 발표할 내용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학생 : 자신감이요?

선생님 : 그래. 발표를 하려면 우선 내용 준비가 잘 되어야 한단다. 발표 연습도 해야겠지만, 발표할 내용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자신감이 생길 거야. 뭐라고 할까? ‘이 내용은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자신감. 내용이 잘 준비 되지 않으면 선생님이라도 떨릴 거야.

학생 : 발표할 내용을 잘 알면 정말 발표를 잘하게 될까요?

선생님 : 물론이지.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멋진 발표 기대할게.

[4~5] 이번에는 방송 인터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 하십시오.

진행자: 이 시간에는 다문화 정책 전문가 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교수님, 먼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 주시죠.

김 교수: 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7년에는 100만 명, 2009년에는 12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밀집 지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도시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오셨는데요. 외국인들이 도시에만 거주하는 것은 아닐 텐데 왜 굳이 도시 지역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셨나요?

김 교수: 그건 전체 외국인의 2/3가 도시에 거주할 뿐 아니라 국적, 직업 등에 따라 다양한 부류의 외국인들이 도시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네, 그렇군요. 청취자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조사하신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네, 첫 번째로 목련 산업 단지 주변의 목련동인데요. 이 지역은 산업 단지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일터 가까운 지역에 모여 살면서 형성된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외국인 관련 행정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등 혁신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목련동 지역은 주요 정책인 다문화 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시 정비에 치우쳐 시행되었기 때문에 거주 외국인과 지역 사회의 소통을 위한 정책에는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그럼, 목련동 지역의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교수: 아, 그건 아닙니다. 시행된 정책의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장미동의 저렴한 주택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대중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지역에 비해 물가가 싸다는 장점 때문에 특정 국적의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된 곳입니다. 장미동 지역은 최근 다문화 센터가 문을 열어 거주 외국인과 지역 사회의 소통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외국인 밀집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 교수: 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외국인 취업 알선 센터 운영,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다문화 관광 특구 지정 등을 들 수 있겠고, 지역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책으로는 다문화 센터 운영, 다문화 축제 지원 사업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